

남도 매력에 빠진 외국인...석 달간 192만명 다녀갔다

市 23만명·道 169만명...매달 방문객 ↑
중국 관광객 중심 해외 방문객 유입 확대
문화관광축제 참가자 2년 연속 10만 넘어

광주·전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3개월 사이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지역별 방문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광주·전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91만8천68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3만2천641명, 전남이 168만6천4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은 풍부한 해양·생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광주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2월 5만9천491명에서 3월 7만1천628명, 4월 9만5천519명으로 매달 방문객이 증가

했다. 전남 역시 2월 51만940명, 3월 52만2천430명, 4월 65만2천673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4월에는 광주와 전남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돼 봄철 관광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 방문객 비중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4월 기준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1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베트남 12.0%, 미국 8.0%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중국인이 25.3%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4%, 필리핀 9.0%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일부 지역은 '방문객 급증 동네'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북구 풍향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 246명에서 올해 659명으로 늘어나 167.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삼각동은 885명에서 2천886명으로 133.1%, 두암2동은 1천154명에서 2천586명으로 124.1%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전남에서는 화순군 사평면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78명에 불과했던 외국

인 방문객은 올해 1천154명으로 늘어 566.3% 증가했다.

보성군 북내면도 67명에서 332명으로 488.6% 증가했으며, 여수시 서강동 역시 249명에서 1천375명으로 45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데이터랩의 '방문객 급증 동네'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외국인 방문객 증가율을 분석해 관광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행정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정 지역의 관광 인기도와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문화관광축제의 글로벌 경쟁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외국인 참가자는 10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0만2천명에 이어 2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선 수치다.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비중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비중은 2022년 0.1%에서 2023년 0.5%, 2024년 0.7%, 2025년 0.8%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호 기자



AI PC용 칩 N1X 선보이는 젠슨 황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뮤지션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AI용 PC용 칩 N1X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연 3.41%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특판

기본 3.10%에 우대금리 더해
이달 말까지 1천억 한도 운영

광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디지털예금'을 대상으로 '특판 디지털예금 금리 U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 채널 이용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한정 판매 이벤트로, 12개월 기준 최고 연 3.41%의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금리는 2026년 5월 28일 기준 세전 이자율이다.

이벤트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총 1천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단, 판매 한도 소진 시에는 이벤트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입금을 포함해 직전 1개월 이내 광주은행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고객이다.

금리 혜택은 이벤트 기간 중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신규 가입한 뒤 만기 해지하는 경우 적용된다. 최고 연 3.41% 금리는 기본금리 연 3.10%에 마케팅 동의 우대금리 연 0.11%p와 이벤트 우대금리 연 0.21%p를

더한 금리다. 상품 가입은 광주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디지털 금융 상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경쟁력 있는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중진공 호남연수원 '이음학교' 참가기업 모집

경영승계 특화 교육 등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1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창업주와 후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승계 과정인 '2026 중소기업이음학교'를 운영하고 참가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창업주의 경험과 철학, 미래세대

의 혁신과 비전을 연결해 원활한 기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승계 절차 교육을 넘어 세대간 소통과 기업 미래 비전 수립까지 함께 다루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으로는 ▲세대 간 공감과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업승계 프로세스 및 법률·노무 이슈 ▲상속·증여 및 기업상속 공제

등 세부 전략 ▲창업주·후계자 인터뷰 기반 기업 비전 설계 ▲우리회사 미래로드맵 수립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창업주 1명과 후계자 1명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연수비는 1개사(2인)당 50만원이다. 2026년 지정 예정인 패밀리기업 지정기업(100%) 및 협·단체 회원기업(50%), CEO명품 아카데미 수료기업(50%)에게는 교육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호남연수원(062-250-3021)으로 하면 된다. /안태호 기자

광주경총, 지역 가전·뿌리산업 고용 안착 총력

융·복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독려
면접비 등 지원 초기 진입 장벽 낮춰

광주경총총합회는 고용노동부, 광주시와 함께 대우위니아 사태 여파 극복과 가전·뿌리기업 구인난 해소 위해 추진 중인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2026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구인·구직 매칭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고용복지+센터 및 광주광산고용센터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와 연계해 관내 융·복합 가전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할 경우 5만원의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말 통합공고 이후 채용된 신규 근로자들의 1개월 만근 시점에 맞춰, 50만원

의 '취업 성공 축하금' 지급도 시작했다. 신규 인력의 원활한 현장 융화를 돕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소통 간담회비(신규 채용 1인당 50만원,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역시 순차적으로 집행을 앞두고 있어 참여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경총은 단기 안착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미참여 기업과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입사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이 지원되며, 근로자 본인에게는 1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이 일시 지급된다.

또한,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직무 지도를 맡은 재직자(사수)에게도 6개월 후 60만원의 고용안착 성공 인센티브가 주어져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임채만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있는 장성 오일장

황룡시장, 사거리전통시장, 사창시장

◎ 장이 서는 날 ◎

- **황룡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사거리전통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 **사창시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Jangseong** 장성군
광고문의 : 062)650-2099